



1일 고(故)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 미사가 열린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2005년 4월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했을 당시 약 300만 명의 순례객이 바티칸을 찾은 이후 최다 인파다. 이 중 수만 명은 지난달 30일부터 광장 주변에서 밤을 보내며 시복을 축하했다. [바티칸 AP=연합뉴스]

# 요한 바오로 2세, 사상 최단기간 복자

(福子·성인 전 단계)

## 선종 6년 만에 시복식

2005년 4월 선종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20~2005년)가 1일 복자(福子) 반열에 올랐다. 사후 6년1개월 만으로 가톨릭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복자에 추대됐다. 고 테레사 수녀의 사후 복자 추대보다 15일 앞섰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시복(諡福·복자 추대) 미사에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조국 폴란드에서 온 8만여 명 등 100만 명 이상의 가톨릭 신자가 모였다”고 전했다. 시복 미사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시복식의 하이라이트였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집전한 시복 미사에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레흐 바웬사 전 폴

란드 대통령, 펠리페 스페인 왕세자 부부 등 87개국 지도자들이 모였다. 유럽연합(EU)으로부터 비자 발급 제한 제재를 받는 짐바브웨의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도 참석했다. 성베드로 성당에는 시복식이 진행된 3일간 제대 앞에 요한 바오로

2세의 유해가 안치되고 생전에 채취한 혈액이 공개됐다. 성베드로 광장에서는 수만 명의 순례객이 지난달 30일 밤부터 광장 주변에서 침낭을 깔고 밤을 보냈다. 로마 교황청은 헬기와 30여 대의 카메라를 동원해 시복식을 활

영한 뒤 3D 입체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예정이다. 교황청은 시복식을 통해 성추문 스캔들로 추락한 가톨릭의 이미지가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부터 27년간 재위하며 종교 간 화해에

시복을 축하합니다. 현재 교황청 시성에서 심사 중인 ‘증거자 최양업 신부’와 ‘하느님의 종 124위’ 한국 순교자의 시복 절차에 대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는 축하 서한을 교황청에 보냈다. 남형석 기자 namgiza@joongang.co.kr

전 세계에서 100만 명 몰려

## 짐바브웨 무가베도 참석

앞장섰다. 92년에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명예를 359년 만에 회복시켜 줬다. 재위 중 482명을 성인(聖人)으로 추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복을 축하합니다. 현재 교황청 시성에서 심사 중인 ‘증거자 최양업 신부’와 ‘하느님의 종 124위’ 한국 순교자의 시복 절차에 대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는 축하 서한을 교황청에 보냈다. 남형석 기자 namgiza@joongang.co.kr

◆시복=선종한 가톨릭 교인 중 거룩한 삶을 살아 공적인 공경을 받을 만하다고 인정받는 이에게 로마 교황청이 복자 칭호를 허가하는 것. 성인(聖人)으로 추대되는 전 단계다. 시복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기적을 행해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을 인정받으면 시성(諡聖)을 통해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다.

# ‘들러리’ 캐서린 여동생 떴다

(파이파 미들턴)

## 로열웨딩서 매력적 뒷모습

## 페이스북에 팬클럽 줄이어

영국 윌리엄(29) 왕자의 결혼식 때 신부 캐서린(29)의 들러리를 섰던 동생 파이파(Pippa Middleton·27·사진)가 연예인이나 왕족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결혼식장에서 보여준 매력적인 모습 때문이다. 특히 흰 드레스의 뒷태에 매료됐음을 고백하는 남성이 많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에는 지난달 29일 결혼식 직후 여러 개의 파이파 팬클럽이 생겨났다. ‘파이파 미들턴 팬 페이지’는 1일 현재 회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파이파 미들턴 뒤에 사랑 모임’ 회원도 5만 명 이상이다.

결혼식 때 입은 드레스 위로 드러난 몸매에 대한 칭찬도 넘쳐난다. 드레스는 언니 캐서린의 웨딩 드레스를 디자인한 ‘알렉산더 매퀸’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 세라 버턴이 만들었다. 신랑 윌리엄 왕자의 들러리를 섰던 해리 왕자와 잘 어울린다며 왕실과 미들턴가가 겹사돈을 맺을 것을 제안하는 트위터 글도 번지고 있다. 파티 기획자인 파이파는 런던의 금융가에서 일하는 남자친구가 이미 있다. 명문 사립학교 이튼 출신인 이 남자친구도 이번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그는 윌리엄 왕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피=이상연 특약원 joonny@joongang.co.kr

◆케이트→캐서린으로 표기 변경=지난달 29일 결혼식을 올린 케이트 미들턴은 혼례 직전 ‘케이트미들턴 공작 부인(Duchess of Cambridge)’이란 작위를 받았습니다. 본명이 캐서린인 그는 이전까지는 애칭인 케이트로 불렸으나 작위를 받은 뒤로는 공식 석상에선 캐서린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신들도 캐서린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본지도 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 다이애나 그림자 드리워진 ‘로열웨딩’

## 윌리엄 결혼식 개막 찬송가는

## 어머니 장례식 때 불렀던 노래

“우리 어머니가 형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난달 29일 버킹엄궁에서 열린 윌리엄 영국 왕자와 캐서린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해리 왕자가 형인 윌리엄에게 한 말이다. 순간 윌리엄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윌리엄의 결혼식에는 97년 9월

사망한 다이애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결혼식장은 97년 9월 6일 다이애나의 장례식이 열렸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다. 윌리엄이 케이트와 함께 결혼 행진을 했던 사원의 통로는 14년 전 어머니의 관을 앞세우고 동생 해리와 함께 걸었던 곳이다. 결혼식 개막 찬송가는 다이애나 장례식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다. 결혼 행진 찬송가도 30년 전 다이애나 결혼식 때의 곡이다.

정재홍 기자 hongji@joongang.co.kr

## 서울교육대학교 TESOL

2011학년도 서울교대-호주대학 공동 TESOL 과정  
7월 25일 개강 제7기 신입생 수시 모집  
- 입학금 50% 면제 혜택 -

**YL TESOL 자격증 과정** **TESOL 자격증 과정**  
**호주 사우스뱅크 국립대학(SBIT) 준석사 과정**

국제영어교사 양성을 위한 서울교대-호주대학 TESOL 과정 특징

- 국내에서 호주 국가 공인 TESOL 자격증 취득
- 서울교대-호주대학 총장 공동 명의 TESOL 자격증 수여
- 미국, 영국 및 호주 석박사 출신의 100% 원어민 교수진
- 실습 / 피드백 위주의 다양한 교수법을 습득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강의
- 호주 퀸즈랜드 공과대학(QUT) TESOL 석사학위 연계과정 (25% 학점 인정)

〈교육대상〉

- YL TESOL 과정 : 유아영어 및 초등(1~3학년) 대상 교육기관 종사자 및 취업 희망자
- TESOL 과정 : 유아부터 중, 고등, 성인 대상 교육기관 종사자 및 희망자

\* 과정별 상세 커리큘럼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설명회**

일시 : 2011년 5월 14일(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1층 세미나실  
\* 입학설명회는 사전예약(온라인/전화)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전형**

원서접수 : 2011년 5월 11일(수) ~ 5월 20일(금) 오후 6시 마감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및 우편, 방문접수  
문의처 : 서울교육대학교 TESOL 교육원  
02) 3475-2338~9  
홈페이지 : http://tesol.snue.ac.kr

서울교육대학교 TESOL 교육원 | Southbank | Griffith University | Queensland Government

## “장” 때문이야!

대변이 힘들고 속이 더부룩하고 까스가 차고 잦은 설사, 과민성 증상

원인을 알면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삼성제약 '톡소무' 식약청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장기기능 개선 인정 확인!

장(腸)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오늘날 장(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사람의 장(腸) 내에는 유익한 미생물이 많아 건강한 장, 튼튼한 장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한 장을 가진 사람은 매일 활력이 넘칠 것이다. '톡소무' 8일간 드셔보면 바로 확신이 옵니다.

몇일째 소식도 없었던 대변이 쉬~욱! “마음고생 무~지 했었지요!”

흔히 잘먹고, 잘자고, 잘자면 비교적 건강하다고 말한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잦은 술자리, 불규칙한 식사때문에 쉽게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매일먹는 '톡소무' 때문일까! 그렇게 더부룩하던 속이 막힘없이 이렇게 후련한 줄이야! '톡소무' 먹길 참 잘했다!

삼성제약 톡소무! 우리몸에 이로운 100% 자연 천연 원료

술기담, 까스명수, 우황청심원으로 알려진 삼성제약 공업(주)의 '톡소무'는 인공물질과 합성물질이 아닌 우리몸에 유익한 이눌린, 한미 호분중배아미강 등 수십가지의 100% 자연천연원료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식약청에서 공식 인정 받았다

\* 유사품 주의 : 밀고 먹을 수 있는 한국식약청 인정 마크 확인 (남·여 공용)

“5일만에 끝낸다!” 5일간 보정! 불만족시 이유불문 '전액환불' 정책!  
'톡소무'는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연구개발한 고급제품으로 이미 2만명 체한 행사에서 많은분들이 5일간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톡소무 드시는 소비자 분들께 신뢰를 위하여 자신있게 환불정책을 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5일간 드시고 효과가 없으면 이유불문하고 당일 즉시 100%전액 환불 드리겠습니다. (환불 보증서발급)  
\* 본 제품은 소비자 피해 규정(재정부 고시)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문의 : 1577-2326 (대표)  
삼성제약공업(주) 톡소무

## 낙태·유산

무보시(참가비 없음)참회위령제  
오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날!  
“낙태·유산아를 망각속에 잊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 아가를 2번 버리는 행위입니다”

〈108번의 참회〉 (10,800원으로 가벼워지는 마음)

당사자는 12년간 낙태·유산된 태아들의 슬픈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3회 이상의 49재 위령재를 초중고적으로 봉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명정신에 대한 경중과 참회를 통해 마음의 부거운 짐을 털어드리려고 1번 참회에 100원의 정성으로 108번 참회하는 10,800원의 참회비만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면 참회비없이 가능)

그간 금전적 시간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분과 가슴가득 회한은 있지만, 선뜻 결정못한분들 꼭 동참하세요 가슴속에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혼”이 담긴 정성으로 위령제가 진행되는 날 특히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자비의 정신, 불살생의 정신, 실천의 정신을 기리며...

백운사 주지 지산스님

**초중고교 위령제 안내**

- ▶ 낙태·유산 경험자 남·녀 / 종교가 달라도 됩니다
- ▶ 49재 형식으로 아가들만을 위한 위령제
- ▶ 10,800원의 참회비와 분유 배냇저고리 장난감 등 (위령제 후 전량 미혼보 시설에 기부)
- ▶ 시작일: 2011년 5월 5일(어린이날) 오전 10시 30분
- ▶ 신청은 전화 또는 내방(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백운사 02)971-4958  
건봉사서울포교원 www.bwjisan.com 02)971-1544